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21.11.8.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자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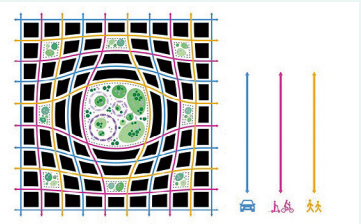
- ① 도시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간서비스
- ②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
- ③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혁신공간 조성
- ④ 지자체·기업·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이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끈다. 또 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조성되는 혁신공간은 스마트시티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으로, 정부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계획 특화방안(예시)



세종 국가시범도시
소유차 제한구역 설정, 간선급행버스(BRT)와 자율주행서를 노선 지정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전국 (인공) 지능화 시동, 지역거점 지능형 도시 조성 추진, 11월 8일 보도자료.



일본 도요타 우분시티
목적별로 지상도로(자율차, 보행자, PM 등 3종류 도로)와 지하도로(화물 전용도로) 조성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16개소를 조성하는데,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공모계획은 지난 11월 8일 공개되었으며, 12월 초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